

##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사회성숙도와의 관계

송 영 민(세종초등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사회 성숙도에 있어서 영재아동과 일반아동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들의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사회성숙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영재아동의 사회적 행동발달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영재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을 선정하였다. 영재아동 집단은 서울시 소재 C 영재교육 학술원에서 영재판별 절차를 거친 후 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영재아동 25명을 선정하였으며, 일반아동 집단으로는 영재아동 집단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서울시 소재 사립 S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중 25명을 무선표집하였다. 이들의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평가 척도'와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를, 사회성숙도 측정을 위해서는 '사회성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변인 중 응집성과 적응성은 영재아가 일반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는 영재아가 일반아에 비해 수용적, 자율적, 과잉압력, 더 높은 일치된 양육태도로 지각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사회성숙도 중에서는 사회성과 긍정적 사고에서 영재아가 일반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 중 응집성 및 적응성과 사회성숙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영재아동의 경우 응집성 및 적응성과 사회성숙도 중 자아정체성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일반아동의 경우 응집성과 사회성숙도 전체와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성숙도와의 관계는 영재아동의 경우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일반아동의 경우는 수용적인 양육태도와 자아정체성, 부모간의 일치된 양육태도와 자아정체성간에 상관성이 나타났다.